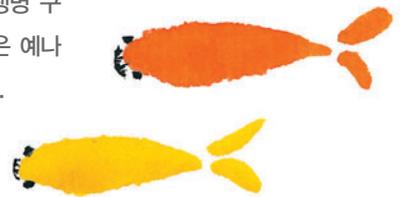


물

우리 생활 속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철학자인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가 남긴 말이다. 탈레스 이후 문화와 철학,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물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생명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깊은 관련을 맺고, 그러한 관련 속에서 어떤 원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우리 생활 속의 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을 다스리고, 물을 벗하며...

글 · 김찬호 _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지구촌 곳곳에 점점 빈발하면서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재해는 대부분 물과 관련된다. 유럽의 때아닌 홍수, 점점 녹아가는 남·북극의 빙하와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도시 하나를 완전히 수몰시킨 카트리나, 수천 명을 휩쓸어간 쓰나미, 한국에도 점점 잦아지는 대규모 물난리...

‘수마(水魔)’라는 말마따나 물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괴력을 지니고 있다. 물은 생명의 근본이지만, 한 순간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이런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치수(治水)를 두고 갖은 궁리를 했다. 그와 함께 그것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이수(利水) 방법들도 다양하게 창출해냈다.

여가공간으로서의 강

그러나 물은 관리의 대상만은 아니다. 인간은 물 그 자체를 좋아 한다. 그래서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강과 바다를 찾는다. 전통 사회에서도 강은 중요한 여가 공

문화

간이었다. 뱃놀이, 답교(踏橋), 탁족(濯足), 유두(流頭) 등 전통 민속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각종 첨단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놀이의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강이나 바다는 굳이 물에 몸을 적시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각별한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 풍경화를 '산수화(山水畵)'라고 일컬을 만큼 동양에서는 강을 자연의 핵심 요소로 여겼다. 물과 자연스럽게 사귀는 '친수(親水)'의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과 강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경제 성장에 수반하여 폭증한 공장 폐수, 갑자기 팽창하는 도시가 쏟아내는 생활하수로 인해 강은 점점 더러워졌다. 그리고 서울의 청계천 같은 지천은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면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청결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수질을 개선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복개함으로써 외형적인 위생과 경관을 정비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그로 인해 도시인들의 시야에서 시냇물은 더욱 멀리 사라져 갔다. 풍당풍당 돌을 던져 냇물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광경을 아이들은 다만 노래에서만 상상할 뿐이다.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빛과 그림자

치수, 이수가 중심이 되는 동안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만 머물러온 강을 어떻게 시민들의 생활 세계와 정서 속으로 끌어들이 것인가?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행히 강을 새롭게 발견하고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강의 옛 모습을 복원하거나 생태 하천으로 재정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양재천과 청계천, 경기도의 안양천, 울산의 태화강 등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열리는 태화강 수영대회에서 참가 시민들은 은어와 부딪히며 헤엄을 치는 진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도심에 물이 다시 흐르면서 열섬 효과가 줄어들고 녹지 공간이 늘어났다. 거기에 소공원이 조성되고 다양한 음지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새와 곤충들이 찾아든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멋진 놀이터가 된다. 또한 강변으로 유쾌하게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활주하면서 마주치는 풍경은 영화에서 보았음직한 장면들의 파노라마다. 그렇듯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해주는 하천 프리미엄을 끼고 인근의 아파트들은 점점

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토를 금수강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아직 많다. 강변이나 계곡에 들어서는 각종 행락 시설들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는 강이 적지 않다. 여가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도시와 그 주변의 자연이 많이 훼손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순수한' 자연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찾아들어간다. 사람이 북적대지 않는 한적한 공간, 그리고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발걸음을 따라 넓은 도로가 뚫리고 음식점이나 숙박 시설들이 들어선다. 접근성이 높아지고 각종 놀이 시설이 마련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김없이 쓰레기와 오폐수가 방출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일부의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찾아들어간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바다는 어떤가? 무자비한 개발로 갯벌들이 사라지는 가운데 파도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해안은 점점 줄어든다. 몇 개 남지 않은 해수욕장에는 해마다 인파(人波)가 파도를 압도할 지경이다. 바캉스 철 해변의 피서객들은 온갖 소음과 방탕한 몸짓, 그리고 쓰레기더미로 바닷가의 정적을 몰아낸다. 거기에서 수평선을 넘지시 바라보며 바다와 대화를 나누고 호젓한 마음자리를 열어젖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겸손하면서 강인한 물의 속성 본받아야

'바다가 죽으면 가슴도 죽는다.' 박두진 선생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인간은 바다로 과감하게 나아가면서 삶과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넓이와 깊이를 따라서 마음의 우주를 건설했다. 일찍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고 설교했다. 겸손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강인한 물의 속성을 통찰한 것이다.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라는 남궁옥분의 <꿈을 먹는 젊은이> 노래 가사처럼, <노인과 바다>에서 상어떼의 습격에 굴복하지 않는 주인공처럼 역경을 넘어서는 힘과 소망을 거기에서 암시받았다. 모든 출구가 막혀버린 듯한 한계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개척할 '블루오션'은 어디에 있는가. 한 줄기 빛망울에서 거대한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일깨우고 있다.